經濟開放化와 産業內 專門化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戰略—

金 栽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産業內貿易의 理論
Ⅲ. 産業內貿易의 測定方法
Ⅳ. 商品輸出入의 産業別 地域別 構成과 産業內貿易의 測定
Ⅴ. 産業內貿易과 政策對應 方向
Ⅵ.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輸出을 增進하기 위한 政策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換率, 金利, 稅率 등을 調整하며 賃金을 동결하는 등 商業的 巨視的 經濟政策(commercial and macro-economic policies)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들은 주로 우리나라 輸出商品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構造的 接近을 통해 輸出增大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이것은 輸出商品의 多樣化를 통해 輸出範圍(trade spectrum)를 넓히는 방안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貿易環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日本의 엔貨의 價値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日本의 商品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商品이 海外市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고, 또 최근에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國際原油價格과 國際金利 때문에 先進工業國의 景氣가 부양되어 우리나라 商品에 대한 輸出需要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先進工業國에서의 保護主義的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開發途上國들로부터의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貿易構造의 分析을 통해서, 특히 대내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政策課題와 발맞추어 交易相對國의 多邊化와 交易商品의 多樣化 문

筆者 : 本院 硏究委員

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히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政策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貿易의 多邊化(trade diversification), 즉 地域的 多邊化와 商品의 多樣化가 중요한 理由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生産을 專門化하고 消費를 多樣化함으로써 經濟的 福祉를 提高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는 專門性에 바탕을 둔 多邊化와 多樣化는 資本力이 약한 中小企業들에게 國際貿易의 기회를 擴大하는 결과가 되므로 中小企業의 育成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뒷받침하게 되며, 세째로는 그같은 多邊化 및 多樣化 戰略은 貿易相對國으로 하여금 保護主義的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戰略이 우리나라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해 有效하다는 것은 實證的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1].

貿易의 多邊化 양상을 測定하는 특별한 方法은 없다. 다만 交易商品이 多樣化되어 있고 交易相對國이 多邊化되어 있을 때는 産業內(intra-industry) 貿易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貿易構造를 産業內 貿易 側面에서 貿易多邊化의 정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方向을 提示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또는 國際化)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施策, 즉 技術指導, 市場情報의 提供 등 구체적인 方案의 例示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巨視的 觀點에서 우리나라 貿易의 構造的 現況을 分析·提示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이며 中小企業들에게 經營戰略의 方向을 提供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硏究의 目的은 變化되어 가는 世界貿易環境에 對處하고, 少額, 少量 輸出을 담당하는 中小 및 中堅 輸出企業의 育成을 통한 輸出産業의 底邊을 擴大하며,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과 市場別 輸出戰略을 樹立하는데 필요한 基本資料를 提示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政策의 타당성을 論理的으로 설명하여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더욱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1) 우리나라의 製造業을 207個의 I-O部門으로 나누어 分析해 본 결과 그중 65個의 中小企業 中心産業이 對外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大企業中心産業에서는 63個産業만이 對外競爭力이 있다고 計測되었다(金栽元, 1985).

Ⅱ. 産業內 貿易의 理論

1. 産業內 貿易理論의 背景

지금까지 國家間의 貿易現象을 설명하는 理論은 Heckscher-Ohlin의 소위 新古典派理論이었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서는 各國의 生産要素 賦存條件에 따라 産業別 比較優位가 결정되고, 이런 比較優位에 따라 各國은 産業別로 專門化가 이루어져서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專門生産된 財貨를 가지고 交易(inter-industry trade)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各國의 貿易패턴은 生産要素의 賦存條件(資本과 勞動의 比率)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렇게 交易되는 商品은 자연히 生産要素의 集約度(factor intensity)가 달라지게 된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生産要素의 賦存條件이 동일한 國家間에는 貿易이 발

생할 이유가 없으며 또 要素의 賦存條件이 서로 다른 나라가 要素의 集約度가 동일한 財貨를 交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要素集約度가 같은 財貨들을 하나의 産業으로 分類·集計하여 놓는다면,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같은 産業內의 財貨가 一國으로부터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많은 經濟學者들, 예를 들면 Verdoon (1960), Balassa(1963), Michalely(1962), Kojima(1964) 등은 貿易이 産業間에서보다도 같은 産業內 財貨의 交易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現象은 生産要素의 賦存條件이 비슷하고 따라서 産業構造가 비슷한 先進工業國間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많은 貿易現象이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次大戰 이후 西方工業國家들의 製造業生産은 年平均 6% 정도씩 증가하여 왔는데 그들의 交易은 年平均 10%씩 증가하여 왔다. 특히 최근 西方國家들은 消費패턴이 서로 비슷하게 接近하여가고 있고 日本을 비롯한 유럽國家들이 급속하게 資本蓄積을 實現하여 生産要素 조건도 비슷한 形態를 갖게 되었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서는 이런 경우 貿易이 減少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대인 것이다. 특히 Aquino는 프랑스가 Renault를 西獨에, 西獨은 VW를 프랑스에 輸出하는 現象, 또 이태리가 Fiat를 프랑스나 西獨에 輸出하고 있으면서 이들 國家들로부터는 Renault와 VW를 輸入하고 있는 사실들을 전통적 貿易理論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고 反問하고 있다.

2. 産業內 貿易의 理論的 根據

傳統的인 Heckscher-Ohlin의 理論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基本假定으로부터 出發한다.

첫째, 모든 財貨의 生産函數는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이다(linearly 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

둘째, 各國의 生産函數는 동일하다.

세째, 消費者의 選好度(consumers' preference)는 일정하며 市場은 完全競爭的이다.

네째, 投入生産要素(勞動 및 資本)는 同質的이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産業內 貿易은 위와 같은 Hecks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Heckscher-Ohlin 理論으로 설명되는 産業內 貿易은 産業區分上의 問題 (또는 aggregation problem)로부터 發生한다. 다시 말해서 要素集約度가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消費上의 代替性(close substitute in consumption) 때문에 같은 産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라든지(예를 들면 鐵製家具와 木製家具의 경우), 여러 가지 生産上의 特性을 달리하는 部品들이 하나의 完製品을 위하여 生産되고 있으나 이들 部品群이 하나의 産業으로 分類되어 있을 때(예를 들면 自動車部品을 輸出하면서 自動車는 輸入하는 경우)는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은 되면서도 統計上 集計의 問題 때문에 産業內 貿易의 現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순수한 産業內 貿易, 즉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부터 보기로 한다.

가. 本質上 同質인 財貨의 差別化

完全競爭市場에서는 財貨가 同質的(homogeneous product)이고 市場에 대한 완전한 情報(full information)가 주어지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財貨는 完全同質的일 수 없으며 市場에 대한 情報가 항상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生產者 또는 消費市場의 地理的 位置에 따른 製品差別化와 時間에 따른 製品差別化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1) 地理的 位置에 따른 差別化

예를 들어 國土의 北部에서 石炭이 生產되고 있으나 石炭을 소비하는 產業施設이 南部에 자리잡고 있을 때 北部에서 生產되는 石炭은 隣接 外國으로 輸出하고 남쪽에서 消費되는 石炭은 第3國으로부터 다시 輸入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같은 產業에 속하는 동일한 財貨가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경우이어서 對外去來表上에는 產業內 貿易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럽의 여러 나라나 美國 및 캐나다의 國境隣接地域에서 同質의 財貨가 한쪽에서는 輸出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輸入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소위 國境貿易(border trade)의 예인데 이것은 機能上 同質의 財貨가 場所에 의해서 差別化(differentiation by location) 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것은 모두가 對外去來表에서 產業內 貿易으로 表示된다. 이와 같은 製品의 差別化는 消費市場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運搬費가 製品價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 仲介貿易(또는 entrepot trade)도 產業內 貿易의 범주에 속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交通의 要地인 동시에 거대한 消費市場이 隣接하여 있어서 이같은 仲介貿易의 利點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창고를 설치하여 都買로 輸入하였다가 散賣의 形式으로 다시 輸出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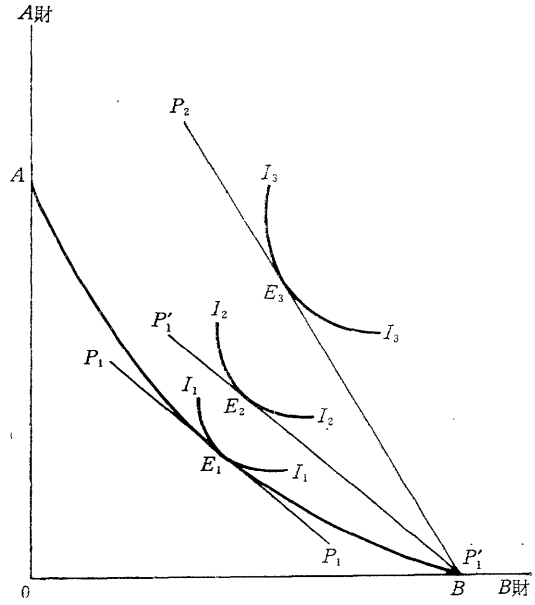
2) 時間에 의한 差別化

財貨는 시간에 의해서도 差別化가 이루어진다(differention by time).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수박을 輸出하다가 겨울철에는 輸入을 한다든지, 계절이 지난 商品을 輸入하여 冷凍倉庫에 보관하였다가 消費가 절정에 이른 계절에 다시 輸出을 한다든지, 또 작업시간대에는 電氣를 輸入하다가 夜間에는 輸出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貿易은 모두가 產業內 貿易으로 표시된다.

나. 商品差別化와 規模의 經濟效果

앞에서 本質的으로 同質인 財貨가 生產 또는 消費되는 地域의 차이, 또는 生產 또는 消費되는 時間上의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差別化가 產業內 貿易을 誘發하는 경우를 보았다. 여기서는 規模의 經濟 效果가 있을 때 同種의 財貨, 즉 같은 產業群(the same statistical industry category)에 속하며 生產上의 代替關係(다시 말해서 投入生產要素가 類似)가 있는 財貨들이 交易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먼저 *A*財와 *B*財는 生產과 消費上에 代替關係(substitutibility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가 있고 다른 財貨의 生產이 일정할 때 이들 財貨의 生產에는 規模의 經濟 效果(the economies of scale)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다른 財貨의 生產을 일정하게 두고 *A*財와 *B*財의 生產可能曲線을 그리면 〔圖 1〕에서의 曲線 *AB*와 같게 된다. 즉 原點을 향해 볼록한 曲線이 된다. 만약 貿易이 시작되기 전

〔圖 1〕 規模의 經濟效果와 産業內貿易



(autarky)의 A財와 B財의 相對價格이 P_1P_1과 같고 그때의 效用函數가 I_1I_1과 같으면 生産과 消費의 均衡點은 E_1과 같게 될 것이다. 貿易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生産函數를 가진 國家에서는 어느 財貨에 專門化할 것인가를 보기로 한다. 이제 A財와 B財가 生産에 있어서 完全代替的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즉 $AO=BO$이고 P_1P_1은 양측으로부터 45°線임). 그리고 우리가 國際貿易을 시작하였다고 해서 A財와 B財의 輸出入價格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가정한다(small country assumption). 이때 위와 같은 生産函數를 가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A財나 B財 어느 하나에 完全專門化하여 交易에 임하는 것이 福祉增進에 도움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財 生産에 專門化하였을 경우 消費均衡點은 E_2가 되고 社會福祉水準은 I_2I_2가 되어 貿易의 利得(gains from trade)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A財에 專門化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規模의 經濟效果가 있을 때에는 生産上의 代替關係가 있는 財貨의 경우에 産業內 貿易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産業에 속하는 A財와 B財中에서 B財를 國內生産·輸出하고 A財를 輸入(産業內 貿易)함으로써 福祉上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例示하였다.

이제 만일 貿易開放前의 國內相對價格(autarky price)과 開放後의 相對價格이 다를 때 우리는 어느 財貨에 專門化할 것인가를 보기로 한다. 〔圖 1〕에서 본 바와 같이 市場開放後의 價格이 P_2P_2와 같다면 우리는 당연히 財貨 B에 專門化하는 것이 유리함을 볼 수 있다.

다. 消費者 嗜好와 規模의 經濟效果

일반적으로 産業內 貿易은 貿易當事國들의 所得水準이 높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 이유는 所得水準이 높은 國家일수록 消費者의 기호가 다양하고(market differentiation), 따라서 財貨生産이 다양(product differentiation)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韓國과 日本間에 TV貿易이 自由化되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日本의 1人當 平均 所得水準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日本에서는 音聲多重用 TV의 需要가 많고 韓國에서는 보통 칼러TV의 需要가 더 많을 때 日本에서는 音聲多重用 TV의 生産이 韓國보다 유리한 반면 韓國은 音聲多重用 TV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더라도 보통의 칼러TV 生産이 더 유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國內市場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훨씬 수월에게 規模의 經濟效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두 나라가 각기 自國生産에 유리한 品目에 專門化하여 交易을 하게 되면 이는 곧 統計上으로

産業內 貿易으로 集計될 것이다.

3. 傳統的 理論과 産業內 貿易

이제 産業을 구분하는 統計的 構造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을 때 Heckscher-Ohlin의 世界에서는 産業內 貿易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制度와 理論的 構成下에서는 産業內 貿易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Hecksher-Ohlin의 世界, 즉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 國家間의 동일한 生産函數, 完全競爭的 市場 등 모든 가정이 성립하나 財貨가 品質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2]. 여기서는 어느 特定産業(A産業)에서의 貿易現象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A産業은 經濟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즉 이 産業에서의 생산증가, 다시 말해서 雇傭 및 投資의 증가가 經濟 전체의 賃金이나 利子率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A産業에서 생산되는 財貨의 品質(quality)은 資本과 勞動의 比率(K/L)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K/L=a$이고 $\bar{a}<a<\underline{a}$이다. $\underline{a}$와 $\bar{a}$는 각각 品質의 下限과 上限을 의미하며 財貨 A의 品質은 $\underline{a}$와 $\bar{a}$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種類(product spectrum)가 있을 수 있다. 또 價格은 品質 a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資本과 勞動의 比率이 높으면 (즉 품질이 높으면) 價格은 높게 된다.

세째, 資本(K)은 A産業 特有의 性格(industry specific)을 가지며 資本의 國家間 이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같은 資本이 産業內에서 여러 가지 品質의 財貨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다(mobile across different qualities). 뿐만 아니라 資本의 利回率(R)은 資本이 항상 완전 이용되도록 조정해 준다고 가정한다.

이제 賃金水準(W)이 國內 및 國外(W^F)에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a品質財貨의 國內 및 國外에서의 單位當 生産費 (C, C^F)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C(a)=W+aR$$
$$C^F(a)=W^F+aR^F$$

따라서 만일 $C(a)<C^F(a)$이면 a品質의 財貨는 우리나라로부터 해외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제 賃金水準은 국내가 해외보다 더 낮고 ($W<W^F$), 利子率은 더 높다고($R>R^F$) 하면 單位當 比率이 國內外에서 같아지는 품질 수준이 있을 것이다. 즉 $W+a_1R=W^F+a_1R^F$이 되는 a_1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때 a_1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_1=\frac{W^F-W}{R-R^F}$$

그러므로

$$C(a)-C^F(a)=(W-W^F)+a(R-R^F)$$
$$=(W-W^F)+\frac{a(W^F-W)}{a_1}$$
$$=(a-a_1)\frac{W^F-W}{a_1}$$

따라서 $W^F-W>0$이면 $C(a)-C^F(a)<0$이 되

2) Rodney E. Falvey (1981) 참조.

기 위해서는 $a-a_1<0$, 또는 $a<a_1$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의 賃金이 더 낮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品質이 낮은 財貨(또는 勞動集約的 財貨)에 比較優位를 갖고 수출을 하게 될 것이며 品質이 높은 財貨는 수입하게 되어 産業內 貿易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國內産業 보호를 위해서 보호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t%의 關稅를 부과하게 되면 輸入品의 價格은 $C^f(a)$ $(1+t)$로 증가하여 産業內 貿易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關稅率을 낮추면 産業內 貿易의 폭은 증가하게 된다[3].

또 위와 같은 論理의 설명은 技術隔差에 바탕을 둔 貿易(technology-gap trade)이나 商品에 바탕을 둔 貿易(product trade)의 理論에서도 원용되고 있다[4]. 즉 財貨 生産에 있어서 技術革新이나 品質改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새롭게 탄생하는 財貨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국가간의 比較優位에 의해 완전한 分業狀態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産業內 貿易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X財를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만일 X財의 代替財인 X'(또는 X財보다 품질상 우위에 있는 財貨)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을 경우를 보기로 한다. 새로운 財貨를 국내수요의 충족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量産體制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만한 크기의 投資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새로운 財貨의 生産을 위해서는 技術의 보급이 필요하며, 세째는 새로운 財貨가 消費者의 嗜好를 만족하며 큰 폭의 需要膨脹이 가능한지도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까지 수입해 오던 X財의 수입이 계속되는 한편 이의 代替財인 X'은 국내 소비와 더불어 수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現象은 貿易統計에서 産業內 貿易으로 표시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自動車 및 電子製品(특히 가정용)은 중요한 輸出戰略業種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들 제품들의 國産化率 提高를 위해 政府와 業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輸出戰略品目에 대하여 國産化率 提高가 요구된다는 것은 産業內 貿易의 戰略을 설명하는 것이다.

技術 및 素材部門에서 뒤떨어지는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그밖의 單純技術 및 單純素材를 필요로 하는 부품과 부품의 조립은 국내에서 담당하여 完製品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하는 부품과 수출하는 完製品이 같은 산업에 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현상은 統計處理上 産業內 貿易으로 표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의 輸出物量의 증가에 비해 국내 附加價値 比率이 작아서 國産化率 증가가 강조되고 있지만 比較靜學的 측면 또는 단순히 貿易政策的 측면에서는 이같은 무역도 증가할수록 유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貿易現象은 원리상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되는 것이며 통계상의 集計問題(aggregation) 때문에 産業內 貿易의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의 交通通

3) 그러므로 미국의 保護主義的 性向은 産業內 貿易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勞動集約的 財貨(예, 中小企業)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輸入自由化는 資本集約的 財貨의 경쟁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4) Grubel and Lloyd 1975, Ch. 7 참조.

信이 발달함에 따라 多國籍企業 戰略이 발달하게 되고 完製品보다도 部品交易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의 車' 戰略(worldcar strategy)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하나의 完成車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部品들은 제각기 比較優位가 있다고 믿어지는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호응하여 자동차·전자·전기·조선 등의 部品은 우리나라의 重要 輸出戰略品目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産業內 貿易의 決定要因

대부분이 經濟理論이 다 그렇듯이 産業內 貿易의 理論도 實證的 現象으로부터 정리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리 과정에서 정립된 假說(hypotheses)들도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統計的으로 檢證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을 통해 발표된 産業內 貿易의 決定要因에 대한 檢證結果들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産業別 假說

産業別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있다.

1) 産業內에서의 商品 差別化가 세분되어 있는 경우

2) 市場이 獨占的 競爭 (또는 市場 差別化)의 구조를 가질 때

3) 財貨의 輸送費가 저렴할 때

4) 多國籍企業의 참여가 많을 때, 또는 部品이나 部分品의 생산이 최종 完製品 組立과 직접 연계되지 않을 때

5) 高度(또는 尖端)技術을 사용하는 産業인 경우(technology gap trade)

6) 財貨의 所得彈力度가 큰 경우(product cycle trade)

7) 規模의 經濟 효과가 클 때[5]

8) 국가간에 貿易障壁이 적은 産業의 경우 등이다.

나. 國家別 假說

産業全體 또는 國家別 貿易構造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 經濟發展 段階가 높은 경우

經濟의 發展段階는 일반적으로 1人當 GNP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1人當 GNP가 높은 국가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消費者의 需要가 다양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연히 産業內 貿易의 비중이 높게 될 것이다[6]. 특히 경제의 발전이 공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生産 및 生産技術의 다양화를 통해서 商品差別化(product differentiation)

5) Loertscher and Wolter (1980)에서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産業內 貿易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要件으로 설명되고 있는 데신에 O. Havrylyshyn and E. Civan (1983)에서는 그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效果가 중요치 않은 要因으로 나타난 데 대하여 Havrylyshyn and Civan은 規模의 經濟效果가 國境貿易(boarder trade)을 감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國境貿易의 가능성이 작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産業內 貿易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要因이 될 것이다.

6) Loertscher and Wolter (1980)는 經濟의 發展 정도(1人當 GNP 수준)가 産業內 貿易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實證結果를 提示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제일 중요한 要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avrylyshyn and Civan, 1983; Gavelin and Lundberg, 1983).

가 넓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곧 産業內 貿易의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다.

2) 賦存資源 條件의 差異가 크지 않은 國家間 貿易의 경우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賦存資源 條件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들 國家間에는 貿易의 誘因이 작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國家間에는 많은 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貿易의 構造는 産業內 貿易의 형태를 띠게 된다. 만일 이들 國家間에 經濟共同體를 形成하고 있을 때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EEC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3) 貿易障壁이 낮은 경우

貿易障壁이 생겨나는 데에는 人爲的 및 自然的 이유 등이 있다. 關稅나 貿易統制와 같은 政策的 이유 외에도 輸送, 通信費에 의한 貿易障壁, 情報蒐集費에 의한 貿易障壁, 言語 및 文化的 배경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貿易障壁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要因에 의한 貿易障壁이 낮을수록 産業內 貿易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4) 所得隔差가 작은 國家間 貿易의 경우

Loertscher and Wolter(1980)는 所得隔差가 작은 先進國間의 貿易에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現象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所得隔差가 産業內 貿易을 결정하는 重要要因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隔差가 작을수록 消費者들의 財貨 需要패턴이 유사하고 따라서 財貨의 消費代替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velin and Lundberg(1983)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産業內 貿易 증가 속도가 선진국간의 産業內 貿易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Ⅲ. 産業內 貿易의 測定方法

産業內 貿易이란 같은 産業(또는 業種)에 속하는 財貨가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크기를 測定하는 方法은 Verdoon(1960), Michaely(1962), Kojima(1964), Balassa(1966), Grubel and Lloyd(1975), Aquino(1980) 등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이들 여러 方法들은 그 方法에 따라 測定結果가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Grubel and Lloyd 方法과 Aquino 方法을 利用하기로 하였다.

1. Grubel and Lloyd 方法

産業內 貿易의 크기를 測定함에 있어서는 産業別 測定과 國別(또는 集合的) 測定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國別 測定이란 産業別 測定値를 加重平均한 것인데 加重平均하는 과정에서 Grubel and Lloyd 方法과 Aquino 方法으로 구분된다. 産業別 測定에서는 Grubel and Lloyd 方法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産業別 測定

먼저 i 産業에서의 總交易量(T_i), 産業間 貿易量(S_i), 그리고 産業內 貿易量(R_i)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T_i=X_i+M_i, \quad i=1\cdots n \cdots\cdots\cdots\cdots\cdots(1)$$

X_i, M_i : i産業 財貨의 輸出 및 輸入量

$$S_i = |X_i - M_i|, \qquad i = 1 \cdots n \cdots\cdots\cdots (2)$$

그러면

$$R_i = T_i - S_i = (X_i + M_i) - |X_i - M_i| \cdots (3)$$

이다. 다시 말해서 産業內 貿易量은 總交易量 中에서 産業間 貿易量을 뺀 나머지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産業內 貿易量을 總交易量에 대한 百分比(B_i)(産業內 貿易指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_i = \frac{T_i - S_i}{T_i} \times 100 = \frac{R_i}{T_i} \times 100 \cdots\cdots (4)$$

그러므로 만약 $S_i = 0$ (또는 $R_i = T_i$)이면 $B_i = 100$이어서 i産業에서의 貿易構造가 完全産業內 貿易(perfect intra-industry trade)임을 의미하며 $S_i = X_i$ 또는 $S_i = M_i$이면 (또는 $M_i = 0$이거나 $X_i = 0$이면) $B_i = 0$이어서 貿易構造가 完全 産業間 貿易(perfect inter-industry trade)임을 의미하게 된다.

나. 國別 測定

國別 産業內 貿易指數는 産業別 産業內 貿易數指(B_i)를 當該産業이 全體 交易量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加重値로 하여 加重平均한 것이다. 즉

$$\bar{B}_i = \Sigma B_i \cdot \frac{X_i + M_i}{\Sigma (X_i + M_i)}$$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100 \cdots\cdots (5)^{7)}$$

그런데 위의 $\bar{B}_i$는 貿易收支가 黑字이거나 赤字가 되면 産業內 貿易度를 under-estimate하는 결함이 있다[8].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式(5)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bar{C}_i = \frac{\Sigma R_i}{\Sigma T_i - |\Sigma X_i - \Sigma M_i|}$$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frac{\Sigma T_i}{\Sigma T_i - |\Sigma X_i - \Sigma M_i|}$$

$$= B_i \times \frac{1}{1-k} \cdots\cdots (6)$$

여기서 $k = \frac{|\Sigma X_i - \Sigma M_i|}{\Sigma T_i}$이고,

$0 \leq k \leq 1$이다.

따라서 貿易收支의 불균형이 크면 k가 커져서 産業內 貿易指數 測定値를 上向調整하게 된다.

2. Aquino의 修正

Aquino(1980)는 Grubel and Lloyd의 調整指數($\bar{C}_i$)가 産業內 貿易指數의 加重平均일뿐 調整指數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못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Aquino는 다음과 같은 修正指數를 제시하고 있다.

$$Q_i = \frac{\Sigma T_i - \Sigma |X_i^e - M_i^e|}{\Sigma T_i} \times 100 \cdots\cdots (7)$$

여기서 $X_i^e = X_i \times \frac{1/2 \Sigma T_i}{\Sigma X_i}$

$$M_i^e = M_i \times \frac{1/2 \Sigma T_i}{\Sigma M_i}$$

---

7) $\bar{B}_i = \Sigma B_i \frac{X_i + M_i}{\Sigma (X_i + M_i)}$

$= \Sigma \left(\frac{R_i}{T_i} \times 100 \times \frac{T_i}{\Sigma T_i} \right)$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100$

8) 예를 들면

$\bar{B}_i = \frac{\Sigma T_i - \Sigma S_i}{\Sigma T_i} \times 100$

産業間 貿易이 零이라고 하더라도(즉 $B_i = 100$) 貿易黑字(또는 赤字)가 있을 때에는 $\Sigma S_i > 0$이어서 $\bar{B}_i < 100$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다.

Aquino는 자신의 修正指數가 産業內 貿易度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Kol and Mennes(1983)는 또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方法이 확실한 우위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Ⅳ.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地域別 構成과 産業內貿易의 測定

1.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地域別 構成

우리나라의 商品 輸出入 現況을 産業別(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로 보기로 한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과 1983年의 두 時點을 비교하여 보면 1977年의 商品 輸出總額은 약 100億달러이던 것이 1983年에는 약 244億달러로 약 244%의 伸張을 보였고, 輸入도 같은 기간동안에 약 108億달러에서 262億달러로 약 242%의 伸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産業中 製造業製品(SITC 5-8産業)의 輸出入을 보면, 輸出의 경우에는 1977年의 85億달러(總輸出의 84.9%)에서 1983年에는 223億달러(總輸出의 91.4%)로 약 262%의 伸張을 보였고 輸入은 같은 기간동안에 58億달러에서(總輸入의 53.9%)에서 137億달러(總輸入의 52.5%)로 약 235%가 伸張되었다. 따라서 貿易收支 전체로 보면 赤字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分析하고자 하는 製造業만 본다면 줄곧 黑字國인 셈이다. 특히 輸出에 있어서는 SITC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其他 雜製品) 産業製品이 主宗을 이루고 있

〈表 1〉 우리나라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 比重

(단위 : 千달러, %)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0	945,223	9.4	1,092,183	4.5	716,747	6.6	1,711,576	6.5
1	106,992	1.0	122,169	0.4	34,174	0.3	20,152	0.1
2	295,317	2.9	291,685	1.2	1,944,249	18.0	3,461,197	13.2
3	120,380	1.2	559,651	2.3	2,185,832	20.2	6,979,593	26.6
4	4,474	0.0	4,148	0.0	85,666	0.8	136,780	0.5
5	221,117	2.2	674,770	2.8	991,306	9.2	2,222,290	8.5
6	3,301,714	30.2	6,957,042	28.5	1,525,396	14.1	2,977,162	11.4
7	1,853,605	18.5	7,980,900	32.6	2,950,327	27.3	7,567,898	28.9
8	3,425,882	34.1	6,721,315	27.5	361,506	3.3	910,884	3.4
9	41,933	0.4	41,192	0.2	12,878	0.1	205,167	0.8
小計[1]	8,532,313	84.9	22,334,027	91.4	5,828,535	53.9	13,678,234	52.2
合計	10,046,637	100.0	24,445,055	100.0	10,808,081	100.0	26,192,699	100.0

註 : 1) 産業 5, 6, 7, 8의 合計임.
資料 : U.S.,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各年度.

〈表 2〉 우리나라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 地域別 構成

(단위 : 千달러)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EEC[4]	0[1]	32,431(3.4)[2]	17,377(1.6)	23(0.0)	17,324(1.0)
	1	64,151(60.0)	58,158(47.6)	6,773(19.8)	13,060(64.8)
	2	17,275(5.8)	13,105(4.5)	22,853(1.2)	61,548(1.8)
	3	3(0.0)	751(0.1)	3,556(0.2)	32,376(0.5)
	4	3(0.1)	2(0.0)	815(1.0)	2,698(2.0)
	5	19,279(8.7)	28,498(4.2)	145,500(14.7)	449,144(20.2)
	6	344,782(11.4)	361,287(5.2)	81,021(5.3)	264,492(8.9)
	7	217,599(11.7)	1,342,573(16.8)	491,291(16.7)	1,128,480(14.9)
	8	709,675(20.7)	1,214,307(18.1)	45,823(12.7)	103,069(11.3)
	9	457(1.1)	742(1.8)	5,138(39.9)	10,153(4.9)
合計		1,405,655(14.0)[3]	3,036,760(12.4)	802,793(7.4)	2,082,324(8.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日本	0	595,968(63.1)	693,298(63.5)	1,188(0.2)	15,398(0.9)
	1	5,927(5.5)	3,174(2.6)	763(2.2)	535(2.7)
	2	165,529(56.1)	131,062(44.9)	154,101(7.9)	205,649(5.9)
	3	69,149(57.4)	446,065(79.7)	51,431(2.4)	98,917(1.4)
	4	931(20.8)	1,262(30.4)	6,965(8.1)	5,173(3.8)
	5	68,767(31.1)	135,642(20.1)	640,758(64.6)	863,383(38.9)
	6	424,838(14.0)	913,314(13.1)	1,251,012(82.0)	1,651,867(55.5)
	7	224,855(12.1)	373,094(4.7)	1,578,377(53.5)	2,848,287(37.6)
	8	556,762(16.3)	695,488(10.3)	229,463(63.5)	473,770(52.0)
	9	35,580(84.8)	11,177(27.1)	3,701(28.7)	75,509(36.8)
合計		2,148,306(21.4)	3,403,576(13.9)	3,917,757(36.2)	6,238,488(23.8)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美國	0	128,677(13.6)	125,709(11.5)	55(0.0)	1,071,913(62.6)
	1	20,659(16.3)	25,596(21.0)	17,152(50.2)	2,675(13.3)
	2	13,548(4.6)	10,058(3.4)	885,063(45.5)	1,442,138(41.7)
	3	26(0.0)	20,330(3.6)	40,120(1.8)	328,232(4.7)
	4	24(0.5)	89(2.1)	44,523(52.0)	39,471(28.9)
	5	21,144(9.6)	58,723(8.7)	130,862(13.2)	606,387(27.3)
	6	765,938(25.3)	1,692,308(24.3)	86,452(5.7)	421,292(14.2)
	7	616,830(33.3)	2,841,456(35.6)	687,232(23.3)	2,059,896(27.2)
	8	1,551,975(45.3)	3,462,312(51.5)	61,980(17.1)	263,808(29.0)
	9	269(0.6)	8,823(21.4)	4,032(31.3)	39,733(19.4)
合計		3,119,090(31.0)	8,245,404(33.7)	1,957,471(18.1)	6,275,545(24.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ASEAN[5]	0	44,269(4.7)	28,219(2.6)	13(0.0)	122,318(7.1)
	1	3,990(3.7)	4,674(3.8)	30(0.1)	8(0.0)
	2	35,455(12.0)	52,339(17.9)	549,063(28.2)	616,738(17.8)
	3	15,909(13.2)	22,021(3.9)	39,256(1.8)	791,191(11.3)
	4	624(13.9)	166(4.0)	4,002(4.7)	60,597(44.3)
	5	28,275(12.8)	162,101(24.0)	1,848(0.2)	19,823(0.9)
	6	228,191(4.2)	642,002(9.2)	15,609(1.0)	64,045(2.2)
	7	48,429(2.6)	448,089(5.6)	16,329(0.6)	156,426(2.1)
	8	18,408(0.5)	48,686(0.7)	899(0.2)	5,729(0.6)
	9	2,376(5.7)	8,445(20.5)	224(1.7)	2,525(1.2)
合計		325,926(3.2)	1,416,742(5.8)	627,273(5.8)	1,839,400(7.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中東[6]	0	12,515(1.3)	49,157(4.5)	104(0.0)	34(0.0)
	1	332(0.3)	11,971(9.8)	0(0.0)	0(0.0)
	2	18,115(6.1)	9,629(3.3)	1(0.0)	5,232(0.2)
	3	224(0.2)	1,903(0.3)	1,694,592(77.5)	3,173,637(45.5)
	4	286(6.4)	787(19.0)	0(0.0)	0(0.0)
	5	3,491(1.6)	16,238(2.4)	10(0.0)	9,400(0.4)
	6	624,982(20.6)	1,214,362(17.5)	8(0.0)	37,276(1.3)
	7	240,914(13.0)	841,363(10.5)	1,798(0.1)	111,030(1.5)
	8	98,793(2.9)	236,083(3.5)	210(0.1)	1,332(0.1)
	9	101(0.2)	539(1.3)	50(0.4)	188(0.1)
合計		999,753(10.0)	2,382,032(9.7)	1,696,773(15.7)	3,338,129(2.7)

註 : 1) SITC 大分類 Code번호
2) ( )內 숫자는 該當産業에서 우리나라 總輸出入에 대한 比率임.
3) 地域別 輸出入 合計 및 우리나라 總輸出入에 대한 比重임.
4) EEC : 프랑스, 서독,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르크, 영국, 에이레, 덴마크, 그리스 (10個國)
5) ASEAN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個國)
6) 中東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메레이트, 리비아(5個國)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7, 1983.

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SITC 2(燃料를 제외한 原資材), 3(燃料 및 關聯製品),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등이 主種을 이루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輸出과 輸入이 모두 EEC, 日本, 美國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輸出에 있어서는 1977年에 이들 3地域에 66.4%, 1983年에는 60.0%가 集中되어 있으며, 輸入의 경우에는 각각 60.7%와 55.8%씩을 점하고 있다. 비록 그 集中度가 매우 높기는 해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반면 ASEAN과 中東地域과의 貿易比重이 약간 증가하였다.

商品 輸出入의 地域別 收支를 볼 것 같으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美國과 EEC에 대하여는 黑字를 보이는 반면에 그 밖의 地域, 즉 日本, ASEAN, 中東에 대하여는 赤字를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과의 貿易赤字幅은 餘他地域과의 貿易에서 갖는 黑字의 合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

이제 地域間 貿易을 産業別로 보기로 한다. 먼저 製造業部門(SITC 5, 6, 7, 8,)의 輸出은 지나치게 美國에 集中되어 있다. 특히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기타 雜製品) 産業의 경우에는 當該産業에서의 우리나라 總輸出에 각각 24.3%, 35.6%, 51.5%(1983年 기준)씩을 美國에 輸出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化學 및 關聯製品)産業에서는 (當該産業 輸出額의) 20% 이상을 日本으로 輸出하고 있다. 또 6(工産品)産業에서는 17.5%(1977)~20.6%(1983)가 中東으로 輸出되고 있다. 8(기타 雜製品)産業의 경우에는 美國과 EEC國家에의 輸出이 1977年 66%(1983년 69.6%)에 이르고 있으며 日本을 포함하면 82.3%(1983年 79.9%)까지 集中되어 있다.

輸入은 日本에의 의존이 매우 높다. 우선 우리나라 總商品 輸入의 36.2%(1977), 23.8%(1983)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3年에는 그 比重이 크게 낮아져서 美國으로부터의 輸入比重(24.0%)보다 낮지만 製造業(SITC 5-8産業)의 경우에는 여전히 日本에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예를 들면 1977年度의 産業別 比重을 보면 5(化學 및 關聯製品),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기타 雜製品)의 경우에 각각 64.6%, 82.0%, 53.5%, 63.5%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다. 1983年에는 그 比重이 다소간 낮아지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그 比重이 각각 38.9%, 55.5%, 37.6%, 52.0%씩을 유지하였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輸出入構造의 제 1 차적 문제점은 産業別로 그리고 地域別로 너무 集中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自然資源에 바탕을 둔 産業(resource-based industry)에서는 輸出이 적은 대신 製造業을 중심으로 하는 輸出構造를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으나 産業別로 一部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輸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거대한 市場에 대해 大企業을 중심으로 집중

〈表 3〉 地域別 商品貿易 收支

(단위 : 百萬달러)

	1977			1983		
	輸出	輸入	收支	輸出	輸入	收支
E E C	1,406(14.0)	803(7.4)	603	3,307(12.4)	2,082(8.0)	955
日本	2,148(21.4)	3,918(36.2)	−1,770	3,404(13.9)	6,238(23.8)	−2,834
美國	3,119(31.0)	1,957(18.1)	1,162	8,245(33.7)	6,276(24.0)	1,969
ASEAN	326(3.2)	627(5.8)	−301	1,417(5.8)	1,839(7.0)	−422
中東	999(10.0)	1,697(15.7)	−698	2,382(9.7)	3,338(12.7)	−956
合計	7,998(79.6)	9,002(83.2)	−1,004	18,485(75.5)	19,773(75.5)	−1,288

註 : ( )內 숫자는 전체(輸出 또는 輸入 全體)에 대한 比重(%)임.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7, 1983.

공략한 과거의 輸出入 戰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2. 産業內 貿易의 測定

産業內 貿易의 測定을 통해서 우리가 分析하고자 하는 것은 貿易의 형태나 國家間 經濟의 結合度를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貿易의 다변화 및 다양화 정도를 알아보는 데 주요 득적이 있다. 따라서 全産業을 分析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製造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SITC 5-8産業(671-689 産業은 除外)에서의 輸出入을 자료로 하여 産業內 貿易指數를 계산하였다. 地域別로 본 産業內 貿易의 測定의 경우에서도 그 대상으로 하는 産業의 범위는 마찬가지이다.

IIT指數(産業內 貿易指數)를 계산할 때 産業分類를 얼마나 細分하느냐 하는 데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른 意見이 있다. 예를 들면 Kol and Mennes(1983)는 4 또는 5-digit으로 細分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나 기타 대부분의 實證的 硏究에서는 3-digit 産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産業內 貿易이란 어차피 同質的 財貨(homogeneous products)의 交易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生産과 消費에 있어서는 깊은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의 兩方交易(trade overlap 또는 two-way trade)을 가지고 測定하게 된다. 그러므로 産業을 너무 細分하게 되면 生産代替 關係에 있는 財貨들의 兩方交易이 測定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適正하다고 생각하는 分類水準이 3-digit이다. 여기서도 3-digit 産業을 測定의 基準으로 하였다.

가. 産業內 貿易의 國別 比較

먼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産業內 貿易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對象은 製造業(5-8産業)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67産業(金屬 및 鐵)에 속하는 産業들과 68産業(非鐵金屬)에 속해 있는 産業들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産業에 속하는 財貨들은 製造의 過程을 별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商品差別化(또는 多樣化)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測定方法에 있어서는 Grubel and Lloyd 方法(修正前)과 Aquino方法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對比하였다. 이 두 가지 方法은 實證硏究에서 모두 제나름의 短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Grubel and Lloyd 方法(式 5)은 Grubel and Lloyd 자신들이 지적하였듯이 國際收支의 불균형(赤字 또는 黑字)이 있을 때는 産業內 貿易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Grubel and Lloyd의 修正方法(式 6)이다.

그러나 Grubel and Lloyd의 修正前 方法이 國際收支의 불균형이 있을 때 産業內 貿易을 낮게 평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높여 주기 위한 修正方法이 이와 같은 단점을 올바르게 修正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이 없다. 오히려 日本과 같이 만성적으로 出超인 國家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와 같은 短點을 보완하기 위한 Aquino의 方法은 貿易量보다도 貿易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는 短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9]. 따라서 현재로는 어느 한 가지 方法만을 택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위의 두 가지 方法을 모두 例示하였다.

〈表 4〉는 1976年부터 1982年까지의 韓國, 日本, 싱가포르, 臺灣의 産業內 貿易의 測定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臺灣의 경우에 있어서는 Aquino修正方法과 Grubel and Lloyd 方法間에 測定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 全産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그리고 큰 幅으로 輸出 超過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韓國, 日本, 臺灣에 비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産業內 貿易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國內市場을 가졌을 때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우는 예외인 것 같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貿易障壁이 낮은 것이 産業內 貿易의 測定 결과가 높아지게 된 이유일 것이다. 즉 인위적인 貿易障壁(關稅 및 其他 政府 干與)이 비교적 낮기도 하려니와 또 交通이 편리하고 言語 및 文化的 배경을 같이하는 國家(市場)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세째, 韓國과 日本은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증가하는 아무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工業先進國(日本 제외)들은 지난 20여년간

〈表 4〉 國別 IIT 指數

Aquino 修正方法

	韓 國	日 本	싱 가 포 르	臺 灣
1 9 7 6	34.74	45.11	68.21	n.a.
1 9 7 7	33.13	44.83	69.83	n.a.
1 9 7 8	32.11	46.54	67.55	31.15
1 9 7 9	32.56	45.94	61.60	30.01
1 9 8 0	34.38	45.97	71.64	30.31
1 9 8 1	35.13	44.31	74.34	n.a.
1 9 8 2	28.97	42.92	73.90	33.39

Grubel-Lloyd 方法

	韓 國	日 本	싱 가 포 르	臺 灣
1 9 7 6	35.76	25.92	66.36	n.a.
1 9 7 7	31.50	23.60	66.50	n.a.
1 9 7 8	31.68	25.38	61.23	32.64
1 9 7 9	32.73	29.89	56.52	31.21
1 9 8 0	35.10	27.15	68.72	31.99
1 9 8 1	33.89	24.05	68.89	n.a.
1 9 8 2	27.36	25.27	66.20	36.38

註 : : SITC 5-8 産業(671-689 除外)으로 計算하였음.

9) Aquino는 자신의 修正方法이 Grubel and Lloyd 方法의 短點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지만 Kol and Mennes(1983)는 Aquino 方法이 貿易패턴에 영향을 받는 短點이 있음을 또다른 예로 반증하고 있다. Kol and Mennes는 修正前의 Grubel and Lloyed 方法이 오히려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10]. 日本의 경우는 輸出에 비해서 輸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낮게 測定되었을 것이며 韓國의 경우에서는 戰略品目에 대한 集中的인 輸出 때문에 貿易商品의 多樣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는 産業內 貿易指數가 60 以上인 産業(즉 當該産業의 貿易에서 60% 이상이 産業內 貿易인 産業)과 20 以下인 産業의 數를 大分類(1-digit) 産業別로 보았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높은 産業의 數가 제일 많았으며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 제일 적었다. 製造業 全體(131個産業)로 볼 때 1977年에 있어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60%가 넘는 産業數는 23個

〈表 5〉 IIT指數에 의한 3-digit 産業數

		1977				198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3]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
5. 化學 및 關聯製品 (24)[2]	A[1]	1	13	8	1	6	14	13	2
	B	16	3	1	15	11	1	1	13
6. 生産要素工産品 (34)	A	7	5	8	7	8	7	11	6
	B	16	9	4	22	15	9	4	22
7. 機械 및 運送器機 (45)	A	11	9	17	4	8	4	19	8
	B	24	26	10	34	26	23	4	33
8. 其 他 (28)	A	4	12	13	3	6	9	11	3
	B	15	4	1	19	13	8	0	21
合 計 (131)	A	23	39	46	15	28	34	54	19
	B	71	42	16	90	65	41	9	89

註 : 1) A; 産業別 IIT 指數가 60(%) 以上
B; 産業別 IIT 指數가 20(%) 以下
2) ( )안의 숫자는 該當産業에 속해 있는 3-digit産業의 總數임 (SITC 5-8中 671-689 제외).
3) 1978年度 産業數임.

〈表 6〉 産業別[1] 平均 IIT指數

	1977				198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
5. 化學 및 關聯製品	20.0 (22.9)	57.2 (23.4)	54.2 (25.6)	14.3 (17.3)	32.9 (30.9)	64.6 (23.0)	61.2 (23.5)	24.6 (27.0)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0.1 (29.7)	35.1 (24.9)	45.8 (24.4)	25.3 (32.5)	32.3 (31.6)	40.6 (27.2)	49.6 (24.3)	25.5 (34.0)
7. 機械 및 運送機器	34.0 (32.8)	30.7 (31.6)	45.7 (30.8)	14.4 (27.0)	29.2 (30.2)	24.7 (21.8)	54.5 (24.1)	18.1 (31.4)
8. 其 他	28.2 (29.7)	53.1 (28.5)	56.9 (22.6)	17.1 (26.8)	29.3 (30.2)	46.1 (29.1)	62.3 (19.0)	14.9 (24.6)

註 : 1) SITC 5-8 (671-689 除外)
2) 1978년도 수치임.
( )안의 숫자는 算術平均에 대한 標準偏差임.

10) Hufbaur and Chilas(1974), Aquino(1980), Grubel and Lloyd (1975), 그밖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었음.

에 불과한 데 비해 그 比重이 20%가 안되는 産業의 數는 71個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2年에는 그것이 각각 28個産業과 65個産業으로 변하여 産業數로 보아서는 産業內 貿易의 增加(貿易商品의 多樣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産業內 貿易이 60% 以上을 차지하는 産業數가 1977年에는 39個, 그것이 20% 以下인 産業의 數는 42個였다. 그러나 1982年에는 각각 34個 및 41個 産業으로 그 數가 어느 방향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의 産業內貿易의 比重이 높은 반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매우 낮으며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도 그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全産業에 걸쳐 고루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높음을 볼 수 있으며 臺灣의 경우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는 반대로 거의 全産業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낮다. 위와 같은 현상, 즉 産業別貿易商品의 多樣化 정도를 하나의 指數로 표시하기 위해서 産業內 貿易指數를 大分類 産業別로 算術平均하여 보았다[11].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平均指數가 크게 伸張한 반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오히려 약간 減少하였다. 日本의 경우에서는 5産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을 유지하면서 7産業에서는 오히려 크게 減少하였다[12]. 싱가포르의 경우는 모든 産業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크게 증가하였다.

나. 産業內 貿易의 貿易相對 地域別(또는 國別) 比較

위에서는 우리나라와 餘他世界(rest of the world)와의 貿易에서 발생한 産業內 貿易의 수준을 測定하였다. 여기서는 貿易相對 地域別로 測定한 결과를 보기로 한다. 우선 1977年과 1983年을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産業內

〈表 7〉 貿易相對 地域別 IIT 指數

Aquino 修正方法

	日 本	美 國	EEC	ASEAN	홍 콩	臺 灣	캐 나 다
1 9 7 7	35.0	20.9	14.7	32.3	41.3	30.4	8.6
1 9 8 3	40.66	29.2	39.6	36.0	49.3	49.3	11.9

Grubel-Lloyd 方法

	日 本	美 國	EEC	ASEAN	홍 콩	臺 灣	캐 나 다
1 9 7 7	28.6	22.6	13.7	22.1	15.9	27.0	2.7
1 9 8 3	27.52	31.3	33.3	25.4	39.5	41.4	11.4

註 : SITC 5-8 産業 (671-689 除外)으로 計算하였음.

11) 〈表 4〉의 國別 IIT指數는 産業別 貿易比重을 加重値로 하여 평균한 것이므로 國別 産業內 貿易의 수준을 표시하지만 〈表 6〉의 평균 IIT指數는 算術平均한 것이므로 貿易의 多邊化 정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2)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貿易패턴이 日本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貿易의 수준은 증가하였다[13].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地域別 産業內 貿易指數는 총체적 産業內 貿易指數보다 낮다. 그러나 臺灣 및 ASEAN과의 貿易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所得水準이 비슷한 國家間에는 産業內 貿易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일반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産業別로 본 産業內 貿易指數가 60(%) 以上 및 20(%) 以下인 産業數를 地域別로 보면 〈表 8〉과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日本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을 유지하는 産業數가 1977年과 1983年의 두 시점에서 비교하였을 때 減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美國 및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와의 貿易에서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韓國과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産業內가 아니라) 産業間 專門化가 深化되고 있는 셈이다.

産業別로 보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의 産業內 專門化가 각 地域別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역시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그 예외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表 8〉 地域別 IIT 指數에 의한 3-digit 産業數

1977

	日本	美國	EEC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
5. 化學 및 關聯製品 (24) A	2	3	1	4	3	2	2
B	16	15	20	13	18	16	21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4) A	9	7	10	2	5	4	1
B	12	18	17	23	23	21	27
7. 機械 및 運送機器 (45) A	7	7	7	6	8	5	7
B	27	28	31	29	26	31	34
8. 其他 (28) A	10	1	3	3	5	10	0
B	16	21	19	21	14	14	16
合計 (131) A	28	18	21	15	21	21	10
B	71	82	87	86	81	82	108

1983

	日本	美國	EEC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
5. 化學 및 關聯製品 (24) A	1	2	2	3	4	7	3
B	15	17	21	12	15	11	16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4) A	8	13	4	4	8	6	4
B	11	15	17	21	13	19	23
7. 機械 및 運送機器 (45) A	5	10	12	8	9	11	9
B	30	24	27	25	27	23	30
8. 其他 (28) A	4	4	3	4	7	4	3
B	12	17	16	16	13	15	22
合計 (131) A	18	29	21	19	28	28	19
B	68	73	81	74	68	68	91

註 : A : 3-digit 産業에서의 IIT 指數가 60(%) 以上
B : 3-digit 産業에서의 IIT 指數가 20(%) 以下

13) Grubel-Lloyd 方法으로 測定한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예외이다. 이것은 Aquino 方法이 貿易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貿易相對 地域別 貿易商品의 多樣化를 보기 위한 地域別 平均 IIT指數를 보면 〈表 9〉와 같다.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全産業에 걸쳐 産業內貿易의 平均指數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對ASEAN의 경우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美國과 EEC의 경우에 있어서는 6産業(生産要素別 工産品),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 8産業(기타 雜製品)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약간 증가하였다.

3. 産業內 專門度가 높은 産業과 産業內 專門度의 地域別 變化

産業內 專門度가 높은 産業 (産業內 貿易指數가 높은 産業)과 産業內 專門度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産業을 貿易相對 地域(國)別로 구분하여 〈表 10〉에 요약하였다.

먼저 514 産業(窒素 化學物), 523 産業(기타 無機化學物), 652 産業(綿織物), 695 産業

〈表 9〉 地域別·産業別 平均 IIT指數

	1977				1983			
	日 本	美 國	EEC	ASEAN	日 本	美 國	EEC	ASEAN
5. 化學 및 關聯製品	19.4 (24.6)	22.3 (31.3)	12.4 (21.1)	25.7 (32.4)	18.1 (19.5)	15.3 (20.6)	10.4 (18.5)	24.9 (29.0)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9.2 (28.9)	29.3 (31.1)	34.4 (31.7)	15.6 (20.7)	34.5 (27.5)	37.8 (34.7)	33.0 (28.1)	19.8 (28.6)
7. 機械 및 運送機器	24.5 (28.4)	26.1 (30.5)	20.9 (31.1)	22.5 (28.9)	20.4 (27.6)	31.5 (33.8)	28.0 (35.0)	26.7 (30.3)
8. 其 他	33.6 (35.0)	16.2 (22.9)	17.9 (27.3)	13.6 (22.2)	31.3 (29.3)	25.2 (31.4)	22.6 (24.8)	22.0 (25.9)

註 : ( )內는 標準偏差임.

〈表 10〉 産業內 貿易指數가 높은 産業

	IIT 指數가 60(%) 以上인 産業	IIT 指數가 年 10% 以上씩 증가하여 그것이 40(%) 以上이 된 産業	
		輸出>輸入	輸出<輸入
日 本	512, 541, 651, 652, 653, 656, 663, 665, 691, 697, 699, 714, 749, 761, 762, 771, 778, 786, 792, 821, 872, 883, 884, 892, 893, 894, 895, 896, 898, 899	666	552, 591, 716, 793, 871
美 國	514, 523, 531, 628, 641, 642, 651, 655, 656, 657, 661, 663, 664, 665, 691, 692, 695, 699, 718, 724, 736, 751, 752, 759, 764, 771, 776, 778, 784, 793, 812, 871, 881, 883, 893	612, 821	531, 714, 716, 721, 723
EEC	514, 523, 612, 628, 654, 655, 657, 663, 694, 695, 699, 691, 714, 751, 752, 759, 764, 775, 776, 778, 781, 782, 783, 785, 792, 793, 821, 871, 885	651, 653, 884, 893	662, 736, 812, 874
ASEAN	514, 515, 533, 592, 621, 651, 652, 658, 695, 714, 741, 742, 743, 771, 772, 776, 784, 792, 812, 821, 874, 884, 892	522, 666, 737, 793, 812, 871, 884, 892	659, 726

註 : 숫자는 SITC 3-digit 産業의 Code Number임

(工具), 771 産業(電氣器具) 등은 어느 特定地域이 아니라 複數地域과의 貿易에서 높은 産業內 專門度를 보였다.

또 産業內 專門度가 地域別로 변하여 간 모습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512 産業(알콜, 石炭酸)은 1977年에는 ASEAN과의 貿易에서 높은 産業內 專門度를 보였으나 1983年에는 日本과의 貿易에서 높은 專門度를 보이고 있다. 또 655産業(綿織物)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628 産業(고무製品)은 日本에서 EEC로, · 751産業(事務用品)과 881産業(寫眞器具)은 ASEAN에서 美國으로, 792産業(航空器機 部品)과 896 産業(骨董品, 藝術品) 등은 각각 美國과 EEC에서 日本과의 貿易으로 이동하였다. 地域間 貿易에서 産業內 專門度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우리나라와 所得隔差가 적은 ASEAN 地域과의 貿易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에는 EEC, 그리고 美國, 日本의 순이다. 여기서도 日本은 역시 國際分業이 어려운 나라임을 볼 수 있다.

V. 産業內 貿易과 政策對應 方向

1. 貿易政策과 産業內 貿易

Linder(1961)는 産業內 貿易을 한 國家內에서 서로 다른 地域間의 交易(美國에서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地域과의 交易이라든지 플로리다와 東部地域과의 交易 등)과 비슷한 現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間의 貿易障壁을 없애고 自由貿易에로 진행하여 가면 産業內 貿易은 한층 더 활발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Hufbauer and Chilas(1974)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 온 國家間의 相互關稅 讓許制度는 産業間 專門化보다는 産業內 專門化를 促進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Hufbauer and Chilas에 의하면 GATT 公式이란 國家間의 相互關稅 讓許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生産者 그룹이 消費大衆보다 政治的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로부터 연유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消費者의 福祉가 중요한 것이라면 政府는 마땅히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스스로 그리고 一方的으로 낮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느 特定産業의 경우에 있어서 自國産業에 대한 保護障壁을 일방적으로 引下하면 不利益이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만일 같은 産業에 대하여 相對方國家에서도 똑같이 保護障壁을 引下하면 이번에는 같은 産業內에 不利益을 받는 集團이 생겨남과 동시에 또다른 利益集團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關稅引下 政策은 實踐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相互關稅 讓許制度는 産業內 專門化를 높여서 産業內 貿易을 促進하게 된다.

工業先進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生産의 價格彈力度가 높고 또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産業에서는 關稅의 相互讓許는 生産과 輸出을 늘려서 産業內 專門化의 증가뿐만 아니라 貿易의 不均衡을 교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명한 환경과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는 輸出과 輸入이 産業別로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輸出은 제조업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輸入은 석유 및 기타

輸入代替가 불가능한 原材料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만을 보면 우리나라는 커다란 輸出超過國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貿易相對國은 美國, 日本, EEC와 같이 工業先進國들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두 가지 側面에서 볼 때 關稅의 相互引下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海外로부터 集中的인 輸出攻勢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燃料 및 기타 우리가 輸入하는 原材料는 輸入代替가 불가능하거나 商品差別化가 곤란하여 對應輸出이 어려운 반면 우리가 輸出하는 工產品에 대하여는 消費 및 生產代替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產業內 貿易의 증가는 產業間 貿易의 경우와는 달리 相對方國家가 保護主義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產業內 貿易이 증가하면 財貨 生產의 構成에 變化가 오게 되고 生產要素의 再配分을 통해서 產業構造의 調整作業이 進行될 것이다. 즉 產業內 專門化에로 進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調整에는 調整費用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調整을 요하는 產業에 利益의 集團(gainers)과 損失의 集團(loosers)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調整의 費用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保護主義에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통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生產의 多樣化, 그리고 이로부터 發展되는 產業內 專門化의 深化는 對內的으로는 輸入自由化 政策으로부터 직면하게 될 海外로부터의 輸出攻勢에 대응하는 방책이 되고, 對外的으로는 保護主義壁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Aquino(1980)는 최근에 여러 工業先進國에서도 貿易自由化 效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施策을 강구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즉 어떤 特定產業에 대해서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또는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制度는, 특히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產業에 있어서는, 產業內 貿易이 진행됨에 따라 對外競爭力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產業도 상당 기간동안 存立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生產이나 消費에 있어서 代替性이 매우 강한 財貨가 국내 시장에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財貨에 대한 해외 殘存市場까지를 합치면 經濟規模에서의 生產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14]. 우리나라는 최근 工業發展法의 制定을 통해서 產業의 合理化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貿易自由化가 한편으로는 先進國 斜陽產業의 消費市場化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는 동시에 당분간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을지도 모르는 產業에 대하여 조기에 合理化를 단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될 것이다.

2. 產業內 貿易과 當面施策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貿易環境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貿易施策을 產業內 貿易의 증진을 통한 中小輸出企業의 육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先進工業國에서 한국 商品에 대한 保護主義的 경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지만 그 반면에 日本의 엔貨 强勢는 우리나라 輸出增大에 매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앞

14) 예를 들면 重電機 部門에서 많은 工業先進國에서는 斜陽化되어가는 產業이지만 重電機 자체는 공업화의 기본 시설이 틀림없다. 따라서 先進國에서는 새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新興工業國에서는 product-cycle 理論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比較優位를 갖게 된다.

에서도 지적하였지만, 保護主義에 對處하는 方法은 우선 輸入과 輸出을 연결하는 것이다[15]. 이것은 곧 産業內 貿易의 增進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生産의 多樣化는 輸入開放에 대처하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심각한 貿易마찰없이 輸出을 늘리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엔貨 强勢에 대해서도 항상 樂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엔貨의 强勢는 日本商品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이 伸張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꼭 그러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끼자와」(1982) 교수에 의하면 지난 70년代末 엔貨 强勢의 경우에 日本의 中小企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生産의 合理化를 통한 費用의 節減, 둘째는 市場의 轉換과 多角化, 세째는 新製品의 開發과 高級化, 그리고 다음에는 事業轉換이다. 예를 들면, 美國이나 EEC 등과 같은 先進工業國에의 輸出에서 中東이나 아프리카地域으로의 輸出地域 전환, 中小企業 直接輸出에서 內需 또는 大企業에의 納品을 통한 間接輸出로의 전환 등이 있어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 조건이 豫期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우리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産業別로 보면 纖維機械에서 工作機械部品 및 기타 産業機械部品으로의 전환, 간단한 「볼트」生産에서 自動車部品이나 産業用部品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15) Aquino(1980)는 先進工業國에 있어서 (日本 제외), 輸出은 輸入패턴에, 그리고 輸入은 輸出패턴에 항상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6) 商工部, 「貿易振興 綜合施策」(資料), 1986.

이같은 國際貿易 環境에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貿易施策에는 輸出産業의 저변확대에 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 첫째 少額少量 輸出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中小·中堅 및 地方輸出産業의 육성을 강화하고, 둘째 새로운 시장의 발굴, 세째 새로운 輸出商品의 개발, 그리고 네째는 市場別 輸出戰略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6]. 이같은 시책은 모두 産業內 專門化를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의에 알맞는 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中小企業에 대한 기술 및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貿易節次의 간소화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Ⅵ. 要約 및 結論

이번 硏究의 目的은 구체적인 施策에 대한 새로운 代案을 提示하는 것보다는 旣存施策에 대한 評價와 適用方法, 그리고 環境變化에 따른 앞으로의 對應方案 樹立에 필요한 基本資料를 提示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中小企業者의 輸出을 支援하고 있는 高麗貿易의 機能强化, 中小輸出業者에 대하여는 貿易業 特例를 認定하여 資格要件을 완화하여 주는 것, 海外市場 開拓費에 특별한 稅制 혜택을 주는 것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施策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설명함으로써 施策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施策의 올바른 推進을 기

하고자 하는 데 1次目的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中小企業에 의한 少額少量 輸出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少額少量 輸出이란 外國으로부터의 大量輸入 需要에 대하여 少量씩 輸出하는 多數의 中小企業으로 대응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항상 中小企業政策이 전체적인 産業政策과의 調和不足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아왔다.

먼저 우리나라의 貿易政策과 관련하여 中小 및 中堅企業의 輸出産業化 戰略을 위한 施策方向은 中小·中堅企業, 특히 地方 中小企業의 輸出 參與機會를 擴大하여 輸出産業의 底邊을 擴大하는 것,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 市場別 輸出戰略의 樹立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戰略의 올바른 理解와 戰略樹立을 위한 現況 파악을 위하여서는 商品(産業)別·地域別 貿易構造를 産業內 專門化의 측면에서 分析하는 것이 하나의 方法이라고 생각되었다.

産業內 專門化에 의한 産業內 貿易이란 근본적으로 Heckscher-Ohlin의 理論(産業間專門化에 의한 貿易)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産業內 貿易이란 주로 貿易商品의 差別化(時間·場所에 의한 差別化와 市場 또는 品質·財化의 特性에 의한 差別化)와 規模의 經濟效果로부터 설명되는 貿易現象이다.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를 보면, 첫째 輸出入이 地域別 및 商品別로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본다. 예를 들면 EEC 및 日本, 美國地域과의 輸出入은 全體의 60%를 넘고 있으며 8産業(其他 雜製品) 製品은 위 세 地域에 82.3%를 輸出하고 있다. 또 EEC와 美國과의 貿易에서는 계속 黑字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日本이나 ASEAN, 中東과의 貿易에서는 赤字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輸出入이 大企業을 앞세운 집중공략의 戰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둘째, 經濟全體를 볼 때 싱가포르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매우 큰 데 비해 韓國, 日本, 臺灣은 그것이 매우 낮다. 또 産業內 貿易은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韓國, 日本, 臺灣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 産業內 貿易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오히려 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日本과도 흡사한 現象인데 部品生産의 國際化(國際 都給組織에의 參與)가 미흡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세째, 貿易相對地域別로 본 産業內 貿易指數는 全體平均보다는 약간 낮지만 臺灣 및 ASEAN의 貿易에서는 비교적 높다. 이것은 産業內 貿易의 크기가 貿易相對國家와의 지리적 거리와는 반비례하고 또 所得水準의 차이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일반적 假說을 부분적으로 立證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日本과의 産業內 貿易은 여전히 減少하고 있다. 네째, 産業別 産業內 貿易을 地域別로 보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日本과의 경우는 예외이어서 오히려 減少하였다. 平均的으로 보아 ASEAN과의 貿易에서는 産業內專門度가 深化된 반면 美國과 EEC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減少하였다.

이상과 같은 分析의 結果가 우리에게 주는 政策的 意味는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內 貿易은 貿易自由化의 經濟體

制를 가질 때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商品의 差別化나 規模의 經濟效果가 貿易自由化體制下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工業製品의 貿易에 있어서 항상 輸出超過 現象을 보이고 있고 또 經濟開放化를 推進하고 있는 경우에는 全産業에 걸쳐 輸入壓力을 받게 될 것이다[17]. 따라서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인 中小企業의 育成은 對內的으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게 될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貿易摩擦 없는 輸出의 擴大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큰 폭의 赤字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貿易構造面에서는 産業內 專門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엔貨의 강세는 韓·日間 産業內 專門化를 促進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과의 競爭이 부분적으로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日本의 中小企業이 製品高級化, 事業轉換 등의 方法으로 한편으로는 그들의 시장을 우리나라 中小企業者들에게 내어주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우리나라 中小企業 市場을 침투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産業內 專門化를 통한 産業再編成도 중요한 政策課題가 될 것이다.

17) 이것은 우리가 美國과의 貿易摩擦에서 보는 바와 같은 外國政府로부터의 政策的 壓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機能에 의한, 그리고 競爭의 提高를 통한 外部로부터의 壓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栽元, 『産業構造高度化와 中小企業育成』, 韓國開發研究院, 1985.

다끼자와 구꾸다로 編, 『中小企業의 海外進出』, 1982.

貿易協會, 『貿易統計』, 各年度, 1977, 1983.

Aquino, Antonio, "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d*, CXIV, 1980, pp. 275~296.

Balassa, B., "Intra-Industry Trade and the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in H. Giersch (ed.), *On the Economics of Intra-Industry Trade*, J.C.B. Mohr, Tuebingen. 1979.

Chen, Ting-An,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Deversification in Southeast Asia",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Drabek, Zdenek and David Greenway,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The EEC and CMEA Compared", *KYKLOS* Vol. 37, 1984, pp. 444~469.

Falvey, Rodney E., "Commercial Policy and Intra-Industry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1, pp. 495~511.

Giersch, Herbert (ed.), *On the Economics of Intra-Industry Trade;* Symposium 1978,

Institute fuer Weltwirtschaft der Universitaet Kiel, 1979.

Gray, Peter H., "Two-Way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 A Theoretical Underpinning",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3, pp. 19~38.

Greenway, David and Chis Milner, "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The Economic Journal*, 93 Dec. 1983, pp. 900~908.

Grubel, Herbert G. and P.J. Lloyd, *Intra-Industry Trade*,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5.

Grubel, Herbert G. and P.J. Lloyd,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Economic Record*, Dec. 1971, pp. 494~517.

Hesse Helmut, "Hypothese for the Explanation of Trade Between Industrial Countries, 1953~1970",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Knall, Bruno,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Diversification as Development Strategi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Kojima, K.,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Among Advanced Countrie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64.

Kol, J. and Mennes L.B.M., "Two-way Trade and Intra-Industry Trade with an Application to the Netherlands", Tharakan ed., *Intra-Industry Trade*, North-Holland, 1983.

Linder, S.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Uppsala, 1961.

Lozoya, Jorge & Rosario Green, *International Trade, Industrialization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ergamon Press, 1981.

Mendez, Jodr A. "A Note on Neoclassical Ambiguity and the Specific Factor Production Model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pp. 357~363

Michaely, M., *Concen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62.

Pagoulatos, Emilio and Robert Sorensen, "Two-Way International Trade: An Econometric Analysi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5, pp. 454~465.

Tharakan, P.K.M. (ed.) *Intra-Industry Trade*, North-Holland, 1983.

Tharakan, P.K.M. "Intra-Inustry Trade Between the Industrial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World", *European Economic Review*, 26, 1984, pp. 213~227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